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CONTENTS

인사말	03
축 사	04
개최요강	08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수상작	09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12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32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54
04. 부록 2022년 GKL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74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본부장 남인순입니다.

먼저, 『제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상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와 출품작도 늘어나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개발원은 장애인편의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대전을 비롯해, 국제세미나, 공감주간, 연구 및 정책지원, BF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본부장 남 인 순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노점환입니다.

제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등 참여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서 관광시설 분야가 포함된 지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관광시설, 제품, 환경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는 한국이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은 관광 유관업계의 인식 개선과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행이 일상화된 우리 국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걸맞은 품격있는 관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관광지내 이동 환경 및 관광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여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노 점 환**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윤상흠입니다.

2022년 제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서 입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디자인학자 빅터 파파넥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저서에서 “디자인은 인간이 도구와 환경을, 더 나아가 사회와 자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는 높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이 사람들의 인식, 태도, 습관 등에 큰 영향을 미쳐온 만큼 디자인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은 창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보편화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지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통해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디자인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윤 상 흠**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2022년 제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랜기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는 UD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보며 유니버설디자인이 점차 국민들에게 깊이 공감되며,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LH는 지난 40여년간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에도 관계없이 주거환경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LH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에서 UD의 적용과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훌륭한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LH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에서 수상의 기쁨을 가진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장 박종욱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개최요강 / 수상작

개최요강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성별, 연령, 국적과 같은 조건에 관계없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감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디자인 사고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용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즉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기회 제공으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공모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 명칭: 제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2. 주최 / 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3. 후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공모일정

공모대전 공고	접수	1차 작품심사	2차 작품심사	결과발표 및 시상식	작품전시
22.3.2.~7.29.	22.7.25.~7.29.	22.8.12.	22.9.3.	22.11.23.	22.11.23.~11.27.

부 분	공모 분야
Universal Design	건축 분야
	관광 분야
	제품 분야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6. 공모자격

- 가. UD부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나. BF부문: 「장애인등의편의법」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본인증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득한 대상시설

7. 접수방법

- 가. www.koddi.or.kr/ud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서류: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A1사이즈), 작품 소개 영상(입상자에 한하여 제출)
 다. BF인증 분야는 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문을 통해 별도 접수

8. 시상내역

구 분	건축 분야	관광 분야	제품 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 상	1팀 / 30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1팀 / 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팀 / 30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1팀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 및 상패
최우수상	1팀 / 1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1팀 / 100만원 한국관광공사장상	1팀 / 100만원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우 수 상	2팀 / 50만원 상장 및 상금	2팀 / 50만원 상장 및 상금	2팀 / 50만원 상장 및 상금	
입 선	5팀 / 30만원 상장 및 상금	5팀 / 30만원 상장 및 상금	5팀 / 30만원 상장 및 상금	

수상작



2022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수상작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수상작

대상	공연장, 어우러지다	안혜민 세종대학교
최우수상	모두를 위한 시네마 천국	이소민 한양대학교, 송서진 한양대학교
우수상	'Healable Library' 힐에이블 도서관	조승아 숙명여자대학교
우수상	WAVY	김소현 경희대학교, 백주원 경희대학교, 임형주 경희대학교
입선	방책(防柵)을 허무는 책방(冊房)	고은아 세종대학교
입선	MEANINGFUL INNOVATION	천주연 계원예술대학교, 김도연 계원예술대학교
입선	Pavilion for All Seasons	서하은 계원예술대학교, 정주연 계원예술대학교
입선	수평의 미 - 수평 의미	전지윤, 신성은, 이예림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수상작

대상	UD:YSSEY Area of Multiverse	박현진 경희대학교
최우수상	도로에 뜨는 달 :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모두를 품는 휴게소	김지수 국민대학교, 유상화 국민대학교
우수상	늘담 : 모두를 위한 야외공연장	이규원 덕성여자대학교, 임시영 덕성여자대학교, 김예림 덕성여자대학교
우수상	FOR:REST	류효민 덕성여자대학교
입선	BLA-BLA	서영현 한서대학교, 송지윤 한서대학교, 오선희 한서대학교
입선	이해와 공감_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김수진 영산대학교, 이순곤 영산대학교
입선	슬로:시티-느리지만 함께 걷는 큰 길음	강예은 전북대학교, 박찬혁 전북대학교, 이병헌 전북대학교
입선	낙원_시나브로 물들이다	박현용 경희대학교, 차예지 경희대학교, 홍성찬 경희대학교
입선	지안(至安) 빌리지	이수원 울산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수상작

대상	회전선 콘센트	최민지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최우수상	비마이맵(B my map)	박진영 서일대학교, 진미래 건국대학교
우수상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 <두리>	곽나영 계명대학교, 우예진 계명대학교, 강경희 계명대학교
우수상	BINGGLE(빙글)	이유림 가천대학교, 유혜정 가천대학교
입선	+ABC 시각장애인 안내 드론	정주현 계명대학교, 권소현 계명대학교, 양지혜 계명대학교
입선	Push and Pull Lock(PPL)	오하경 한동대학교, 박하민 한동대학교, 백송이 한동대학교
입선	savior(세이버)	고원준 중앙대학교
입선	Vetter	황현동 홍익대학교, 이유림 홍익대학교, 김예지 홍익대학교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 대상 공연장, 어우러지다
- 최우수상 모두를 위한 시네마 천국
- 우수상 'Healable Library' 힐에이블 도서관
- 우수상 WAVY
- 입선 방책(防柵)을 허무는 책방(冊房)
- 입선 MEANINGFUL INNOVATION
- 입선 Pavilion for All Seasons
- 입선 수평의 미 - 수평 의미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 대상

공연장, 어우러지다



출품자

작품명 : 공연장, 어우러지다
안혜민 | 세종대학교

참가소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지만 단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점점 더 널리 퍼지며 언젠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품설명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합니다. 전시도 관람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같은 공연도 보면서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을 방문할 때 정해진 불편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공연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건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프롤로그

장래에 세기 시대 상황

차별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합니다. 전시도 관람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같은 공연도 보면서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을 방문할 때 정해진 불편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공연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건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문제점

공연장, 문화예술의 접근성

공연장의 구조와 유체역학적 접근을 고려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접근성, 시야 확보, 청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7층과 8층의 공간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접근성, 시야 확보, 청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안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접근성, 시야 확보, 청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접근성, 시야 확보, 청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평면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휠체어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접근성, 시야 확보, 청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 대상

공연장, 어우러지다



- ① 전체모습
- ② 통로 코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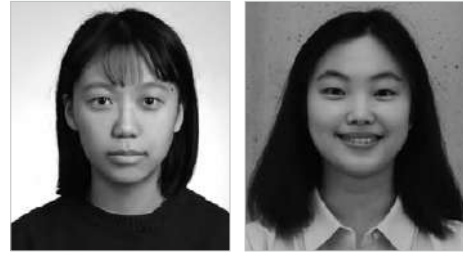
- ① 어우러진 객석 모습
- ② 휠체어석1
- ③ 휠체어석2
- ④ 계단과 경사로
- ⑤ 휠체어석과 통로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 최우수상

모두를 위한 시네마 천국



출품자

작품명 : 모두를 위한 시네마 천국

팀 원 : 이소민 | 한양대학교, 송서진 | 한양대학교

참가소감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이 누구에게나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작품설명

현재 영화관에 마련된 휠체어석은 대부분 제일 앞 줄이나 제일 뒷 줄입니다. 또한 영화관은 어둡고 계단이 많아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자 새로운 의자, 경사로 활용, 다양한 높낮이의 가구 등을 디자인하여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은 영화관, 카페, 도서관, 전시관, 옥상 정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시네마 천국

Problem
CJ O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전수조사
전국 영화 상영권 70% 장애인석 '면 앞줄' 복지부, 2018년부터 장애인석 공간 줄 또는 면 앞줄 의무화
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석 위치 개선 미비. '중간줄 0%'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객 10여명 7시 '면 앞줄' 승객들 기차, 2021.10.13.

Concept
누구나 원하는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
모두가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며 휴식할 수 있는 두광대 공간

프로그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동선
휠체어 이용자와 영화관 인근에 휴식 공간

목적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경사로
모두를 위한 1/13의 경사만 경사로

의자
사용자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영화관 의자

카운터
모두가 서로 가능한 다양한 높낮이의 카운터

핸드레일
다양한 사용자에 배려한 두 가지 높낮이의 핸드레일

엘리베이터
휠체어 2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넓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편리한 화장실

복도
다양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복도

수유실
편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위한 구멍 뚫린 수유실

키예
편안한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 접근이 쉬운 키예

스크린
휠체어 이용 시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섹터

계단실
편안한 넓은 계단 폭과 낮은 단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우수상

'Healable Library' 힐에이블 도서관



출품자

작품명 : 'Healable Library' 힐에이블 도서관
조승아 | 숙명여자대학교

참가소감

유니버설 공모전을 준비하며 사회적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 분들이 평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생각보다 더 많은 공간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아이디어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했던 공간이 편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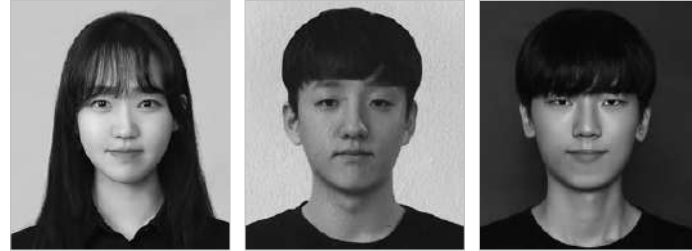
전국 장애인 도서관은 총 32곳이지만 국립 도서관 이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황이며, 대부분의 장애인 도서관이 시각장애인 서비스에 편중되어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시설의 편의성과 자료의 이용 용이성을 높여 누구나 치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인 '힐에이블 라이브러리'를 고안하게 되었다.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우수상 WAVY



출품자

작품명 : WA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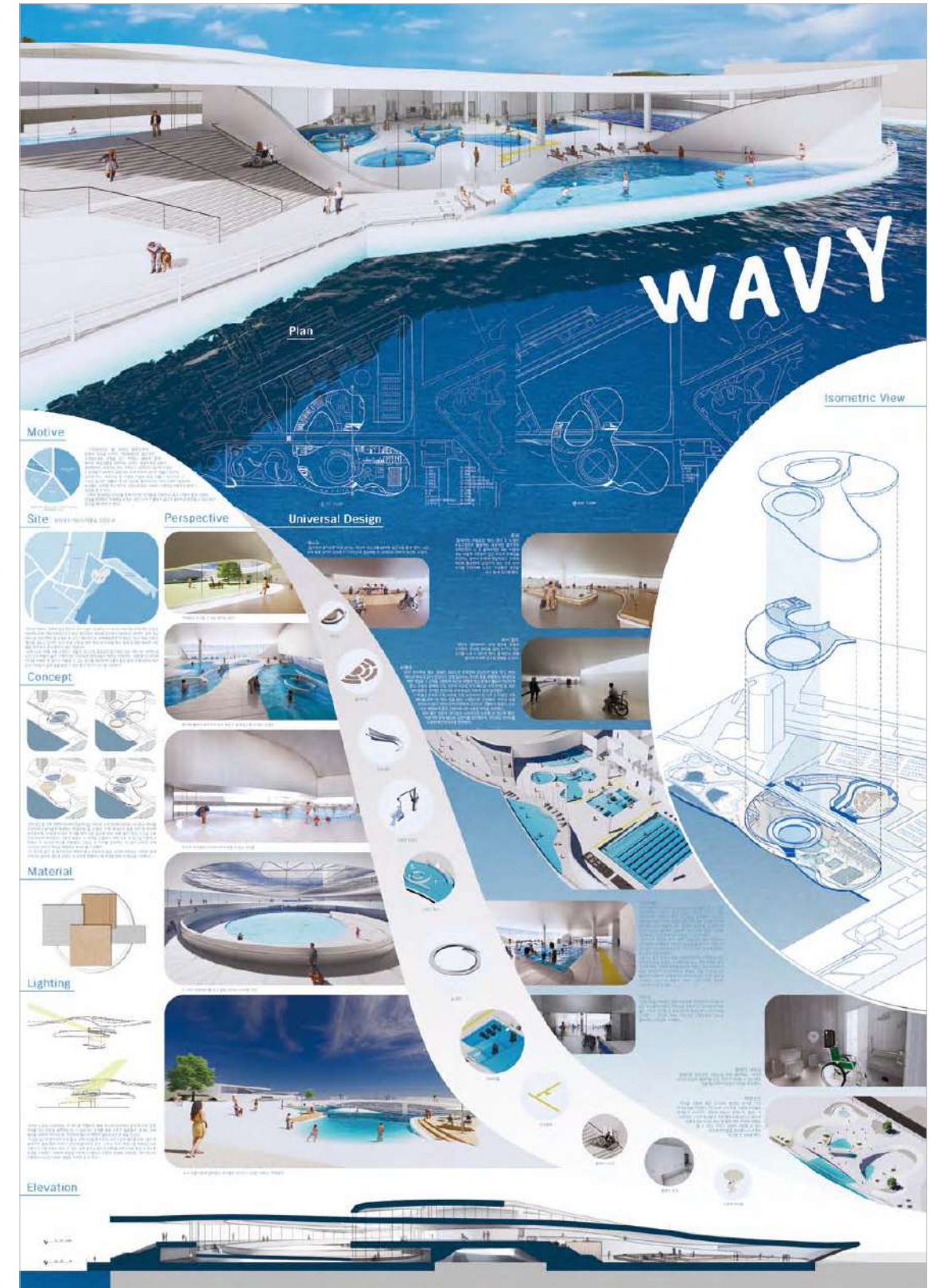
팀 원 : 김소현 | 경희대학교, 백주원 | 경희대학교, 임형주 | 경희대학교

참가소감

건축은 이용자에게 공감하고, 이용자가 되어보는 상상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제약들을 해결해가면서 “모두를 위한 건축”을 배웠습니다. 큰 건축적 공간들을 배치하고, 그 안의 동선을 설계하며 세부 가구들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을 해본 것이 앞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설명

여수엑스포역에 위치한 'WAVY'는 바다와 접해 전망이라는 정적인 행태와 반대되는 동적인 행태인 수영, 해양공원 등 물을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과 휴게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자의 성별, 국적, 장애 유무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MEANINGFUL INNOVATION



출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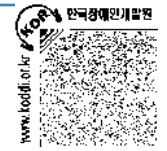
작품명 : MEANINGFUL INNOVATION
 팀 원 : 천주연 | 계원예술대학교, 김도연 | 계원예술대학교

참가소감

이번에 유니버설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만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 노인, 어린이들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배워나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작품설명

"의미있는 혁신적인 센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 속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손쉽게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Pavilion for All Seasons



출품자

작품명 : Pavilion for All Seasons
 팀 원 : 서하은 | 계원예술대학교, 정주연 | 계원예술대학교

참가소감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늘 주변에 있었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 속에 적용된 UD에 이제는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디자인에게 맞추는 게 아닌 사람에게 맞추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품설명

초고령화 문턱에 이른 대한민국은 갈 곳 없는 노인 소외 문제에 맞닥뜨려있습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의 한계(불편함)의 해결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세대통합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알맞게 적용한 다목적 공간 파빌리온을 계획했습니다.



Pavilio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 모든 니이더를 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한 파빌리온

01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수평의 미 - 수평 의미



출품자 작품명 : 수평의 미 - 수평 의미
 팀 원 : 전지윤, 신성은, 이예림

참가소감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이란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꼭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 휴게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손쉽게 사용되어야 하는 공간이기에 이를 주제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며 실생활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작품설명 휴게소는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휴게소는 설계 편의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급자 위주 형태를 보여, 그 결과 획일화를 야기하며 다양한 층의 이용자의 요구 조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로 휴게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의 미는 현재의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입각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수평의 미 - 수평 의미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지 않는 쉼터 - 수평적인 도로 내 복합 휴게소 제안

PROLOGUE
-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현황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실태조사 2021에 따르면 전국 9개 고속도로 이용시간은 약 644, 평균 탑승인원은 1.9명, 휴게소 이용객수는 연간 약 4억 5000만명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이다.

PROBLEM
현재 휴게소는 설계편의 및 효율성 중심이라는 공급자 위주 형태를 보인다. 그 결과 형태적 획일화를 야기하며 다양한 층의 이용자의 요구조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휴게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SOLUTION
복합 휴게타운 개념의 도입

복합휴게소는 기존 휴게소의 일련적 기능을 대차, 주차, 문화 공간, 내외수행물과 지역특산물 판매장 통한 쇼핑, 구내활동, 공간, 여가 및 문화 활동 도입 등이 추가된 휴게소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휴게소 시설은 차인, 차인실, 편의점 등 단순한 휴게 및 편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능숙한 이용자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1. 장애인 2. 노년 3. 장애인 4. 장애인 5. 장애인 6. 장애인
 장애인 노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휴게소 이용객 비중을 조사한 결과, 노년, 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게타운을 형성하고자 한다.

PERSPECTIVES

3F CULTURAL SPACE	CONFERENCE HALL	REST ROOM
2F LOCAL PUBLIC ZONE	EXHIBITION HALL	OFFICE
1.5F CAFE	RESTAURANT	OUTSIDE
1F FOOD COURT	RESTAURANT	OUTSIDE

MATERIAL & COLOR CONCEPT

시각 속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공간 이용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준비된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CIRCULATION
사람들의 수평적 공간 흐름

SPACE PROGRAM / ZONING

1F 열거, 전시 공간 / 휴게실 (대중이용, 수평적) 주차시설, 알선부 휴게 공간
 휴게소 이용객들이 안전, 편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휴게실, 차인실, 차인실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F 지역 문화 및 전시시설, 사무실
 휴게소가 가지고 있는 기반, 문화, 편의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공간으로 지역 문화의 향기가 일어난다.

3F 푸드코트, 식당, 카페, 공용 회의실, 편의점
 휴게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공간으로 지역 문화의 향기가 일어난다.

FLOOR PLAN

① 환경 수평적 설계 - 수평적 접근성 확보
 ② 장애인 시설의 접근성 확보 - 장애인 전용 주차
 ③ 노년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 - 노인 이용객 전용 주차
 ④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 지역 주민 전용 주차
 ⑤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 - 시각 장애인 전용 주차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 대상 UD:YSSEY Area of Multiverse
- 최우수상 도로에 뜨는 달 :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모두를 품는 휴게소
- 우수상 늘담 : 모두를 위한 야외공연장
- 우수상 FOR;REST
- 입선 BLA-BLA
- 입선 이해와 공감_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 입선 슬로;시티-느리지만 함께 걷는 큰 걸음
- 입선 낙원_시나브로 물들이다
- 입선 지안(至安) 빌리지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상

UD:YSSEY Area of Multiverse



출품자

작품명 : UD:YSSEY Area of Multiverse
박현진 | 경희대학교

참가소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광이라는 목적성을 띠는 공간이 하나가 되어 안정성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볼 수 있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특정 타깃층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별, 국적,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 가능한 열린 관광지를 목표로 설계해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작품설명

과학관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관광 목적의 공간이다. 하지만 실내공간에서의 체험교육은 다양성 부족과 공간 활용의 한계에 부딪혔고, 이에 "UD:YSSEY"에서는 기존 과학관의 문제점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 목적의 공간으로서 멀티버스라는 공간개념을 도입해 오랫동안 반복해서 머무를 수 있는 여정의 종착지와 같은 공간을 제안한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상

UD:YSSEY Area of Multiverse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관광공사장상 / 최우수상

도로에 뜨는 달 :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모두를 품는 휴게소



출품자

작품명 : 도로에 뜨는 달 :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모두를 품는 휴게소
 팀 원 : 김지수 | 국민대학교, 유상화 | 국민대학교

참가소감

평소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이 있던 저희는 유니버설 공모전의 공지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관광특구인 경주와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휴게소를 연결지어 경주 휴게소를 사이트로 잡았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유니버설에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간접적으로나마 디자인할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작품설명

'도로에 뜨는 달'은 유니버설 휴게소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휴게소에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한 경험이 있다. 최근 휴게소는 하나의 관광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휴게소가 지닌 교통,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 이야기한다.



도시에 뜨는 달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모두를 품는 휴게소

문제의식
 기존 현대화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나치게 경량화되어 인식이 빈약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과연 안전한가?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중첩, 노인 등 필요의 차이, '안전' 시립 '안전'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를 제안한다.

아이디어
 사이트는 경주휴게소 부근 평야로 선정했다. 문화도시 경주의 특성을 차용한 전통적 휴게소를 제안한다.

디자인 컨셉
 경주의 관광요소 중 하나인 '월성고(지황)'를 테마로 컨셉으로 삼았다. 건물들 두 개의 동으로 나누고 가운데 다리를 놓는 구조를 취하여 건물을 표현했다. 월성고의 대표 디자인 중 하나인 '대리'를 표현하고자 두 개의 동 사이 연통공간을 배치했다.

공간 구성
 2F : 주차장, 카페, 편의점, 휴게소
 1F : 주차장, 카페, 편의점, 휴게소
 PARKING LOT

해결방안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휴게소 제안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심미성으로서 휴게소 제안
 경주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차용한 전통적 휴게소 제안

키워드
 실제 월성고에 인접적으로 소년 100여명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
 주차장 :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휴게소를 제안한다. 주차장은 진입로로 표시하여 공간의 안전성을 높인다.
 1층 야외 공간 : 도시와 연결되는 휴게소를 제안한다. 휴게소를 위한 야외 공간은 진입로로 표시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카페 공간 : 휴게소 공간에 카페를 도입하여 휴게소를 위한 휴게소를 제안한다.
 연결 다리 : 휴게소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 공간. 휴게소 공간을 위한 휴게소를 제안한다.
 야외 공간 : 휴게소 공간을 위한 휴게소를 제안한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우수상 FOR;REST



출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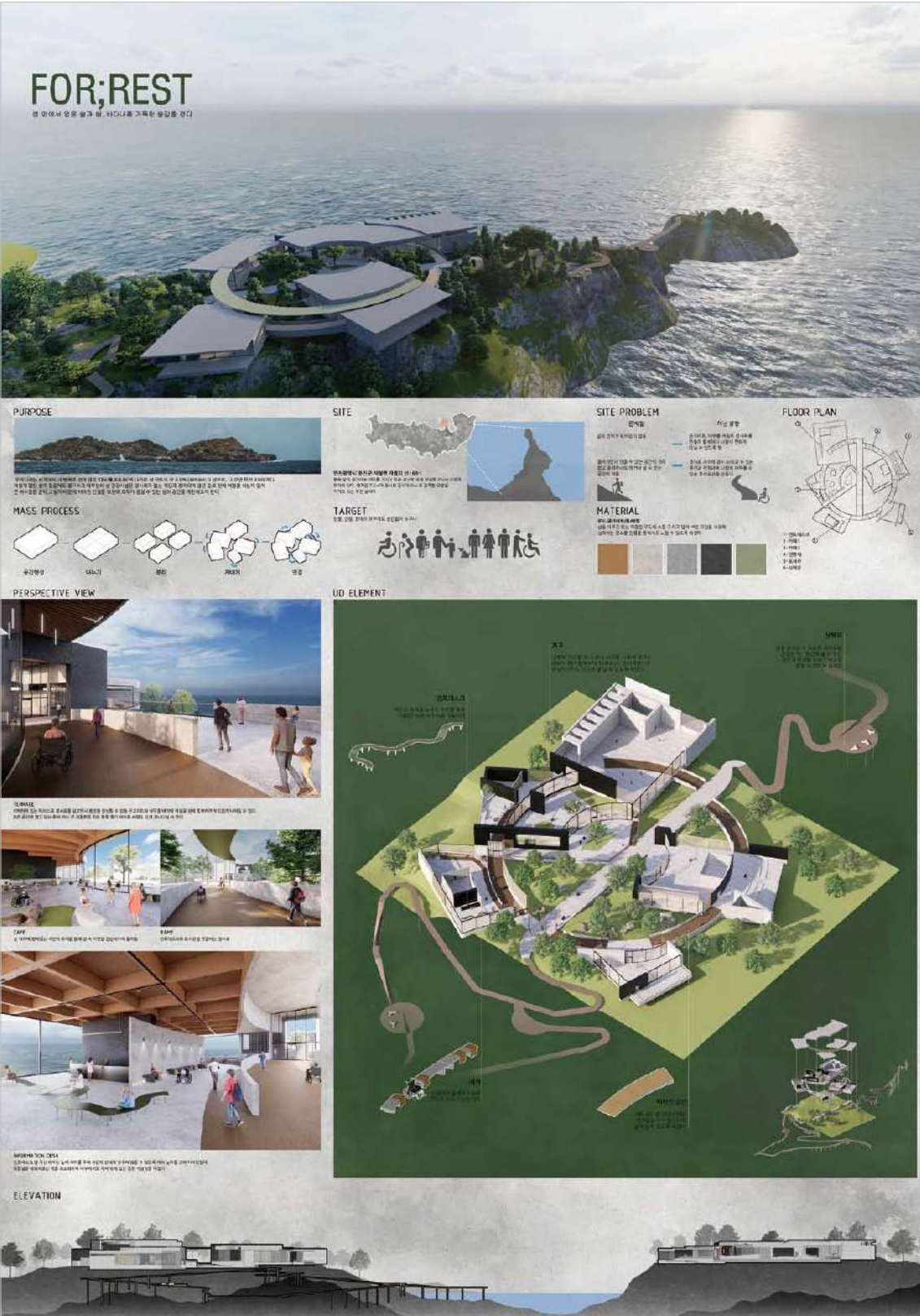
작품명 : FOR;REST
류효민 | 덕성여자대학교

참가소감

처음으로 혼자 나가는 공모전이라 부담감도 컸지만, 수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하고 이번 계기로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 같다.

작품설명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해(多島海)'의 나라로 전 국토의 약 3.9%(3853km²)가 섬으로, 그 수만 무려 3348개다. 이렇게 많은 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섬 관광시설은 경사가 없는 계단과 정비되지 않은 길로 인해 여행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섬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BLA-BLA



출품자

작품명 : BLA-BLA

팀원 : 서영현 | 한서대학교, 송지윤 | 한서대학교, 오선희 | 한서대학교

참가소감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이 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여 예술적, 기능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계획하여 공동작품을 완성시켜 부듯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작품설명

'Bla-Bla'공원은 신체적 약자, 견주 등을 포함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Bla-Bla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모두가 이 공원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히 즐길 수 있길 바란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이해와 공감_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출품자

작품명 : 이해와 공감_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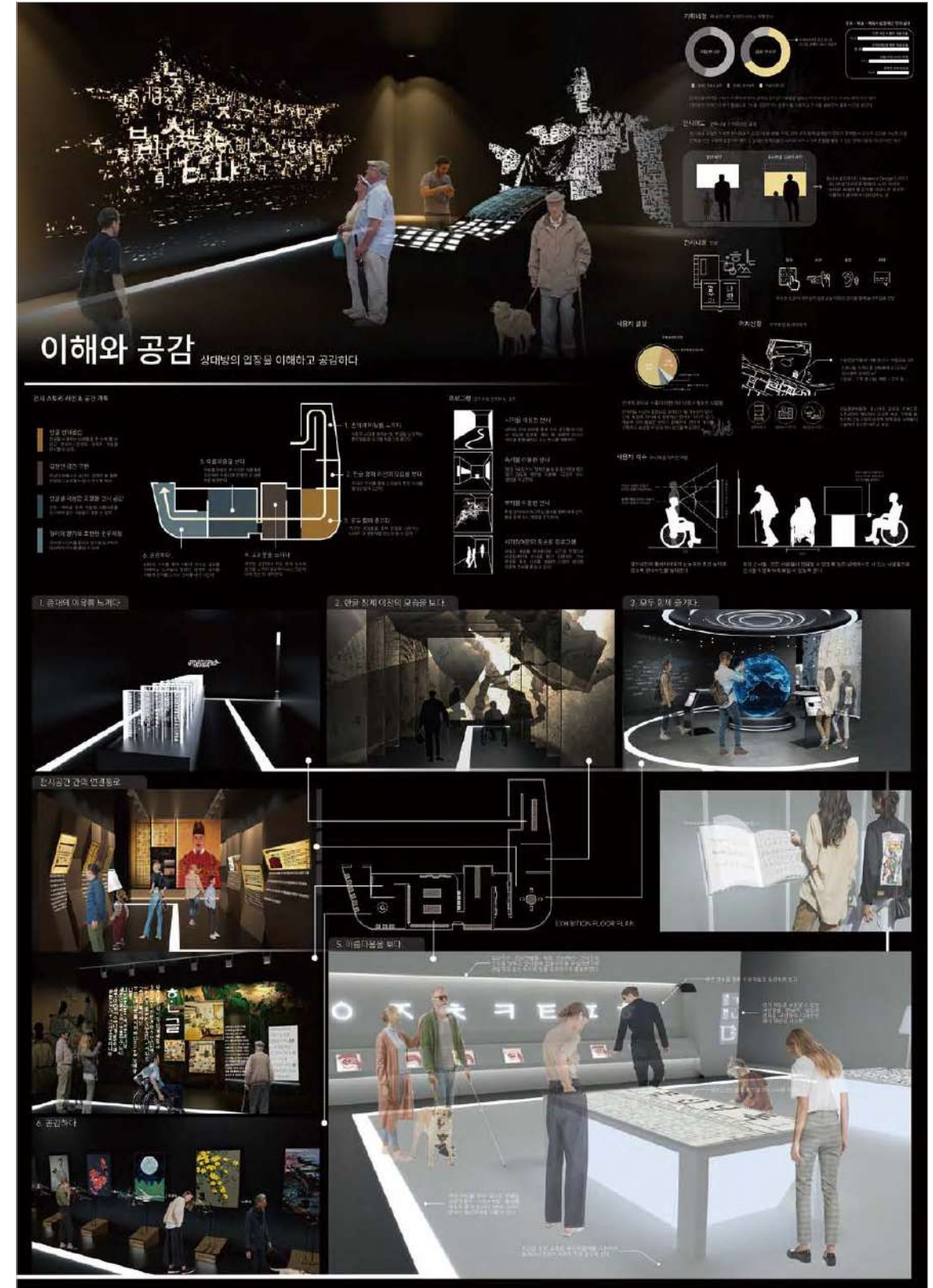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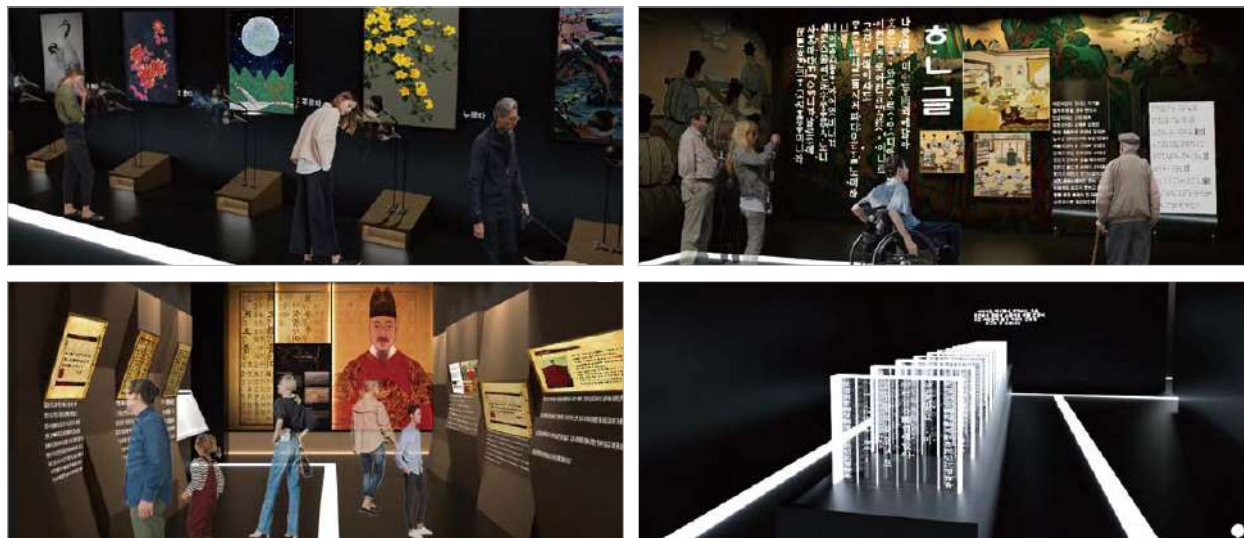
팀 원 : 김수진 | 영산대학교, 이순곤 | 영산대학교

참가소감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풀어내어 경계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품설명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은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한 전시 연출과 공간 구성을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곳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즐겁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전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언어 '우리나라 한글'을 주제로 한 다감각 전시 공간으로 테마를 설정하였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슬로;시티느리지만 함께 걷는 큰 걸음



출품자

작품명 : 슬로;시티느리지만 함께 걷는 큰 걸음
 강예은 | 전북대학교, 박찬혁 | 전북대학교, 이병헌 | 전북대학교

참가소감

교수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공모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였지만, 준비하며 점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로;시티를 설계하며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치던 사소한 것들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변을 보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품설명

평균의 기준이 무너질 때 사회 구성원 간 공존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된다고 생각하며 약자라는 인식보다 먼저 일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추구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함 없이 소소한 아름다움까지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생각하며, 설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지선정
 공간명칭 : 성내운수지 체육공원
 공간소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면적 : 58-13
 건물 용적률 : 43300m²
 부지면적 : 9500m²
 성내운수지 체육공원
 빌딩 숲과 가까이 위치한
 지점으로 성내동길의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체육
 여가시설

공간구성
 ① 스페인
 ② 영국
 ③ 이탈리아
 ④ 프랑스
 ⑤ 관망다리

국가별 테마 정원
 Spain
 영국
 이탈리아
 France
 Italy

시설상 세부
 귀족나무
 우수못다리
 수목
 네드나무
 나무수목
 테리수
 화단석
 사탕나무
 둥근 잔디밭
 열매과
 에데알두 그릴

슬로;시티 (Slow city) 느리지만 함께 걷는 큰 걸음

“모두가 같은 고를 넘어보며 함께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너른 현대인을 위해 모두가 쉬어가는 힐링공간!”

Background
 최근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사회진입,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적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은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행군’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평균치에 벗어난
 사람들을 차별한다. 따라서 평균의 기준이
 무너질 때 사회 구성원 간 공존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된다고 생각하며 약자라는
 인식보다 먼저 일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추구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함 없이 소소한
 아름다움까지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하며, 설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Facility details

|| 슬로;시티 || 평면도

|| 슬로;시티 || 유니버설 디자인

1. 통상
 -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원만한 경사
 - 여러 높낮이의 손잡이 설치
 - 다리를 통한 모든 공간 감상 가능
 - 평탄한 스텝을 활용한 무지 포장
 - 모든 통상의 폭은 2m 이상 유지
 - 협자 볼록을 활용한 통상
2. 시설물
 - 휠체어의 넓은 통상을 고려해 넓게 조성
 - 아이들의 놀이기 놀이 가능
 - 의사 놀이기 조절과 레일을 통해 원하는 위치 이동 가능
 - 사용자 안내전 - 반리전을 고려한 여러 높낮이의 등수대
3. 국가별 테마 정원
 - 외국인이면 친숙함을 내국인에게만 새로운 경험 제공
 - 다양한 조경양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 안내 시설물 조성, 세계언어 지원, 분자 및 전자 지원

|| 슬로;시티 || 주요 소재

- 한지형 안다 - 포장1
- 한무알 필사 - 포장2
- 하드우드 (이벤트) - 다리데크
- 대리석, 프랑스 파고라, 분수
- 포피제 - 이탈리아 벽
- 에드워드 - 스페인

|| 슬로;시티 || 조감도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낙원_시나브로 물들이다



출품자

작품명 : 낙원_시나브로 물들이다

팀 원 : 박현용 | 경희대학교, 차예지 | 경희대학교, 홍성찬 | 경희대학교

참가소감

유니버설디자인을 알게 된 후, 흔히 건넌 거리에도 건물 내부에서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쉽게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나 연령, 성별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소중한 뜻을 모아주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이에 모두를 위한 경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음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주는 매개체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낙원악기상가는 여러 세대가 모이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했지만 심한 노후화로 낙원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에 '시나브로 물들이다'에서는 이 공간을 음악과 미디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02 유니버설디자인 관광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지안(至安) 빌리지



출품자

작품명 : 지안(至安) 빌리지
이수원 | 울산대학교

참가소감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20대 청년으로서 그동안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공간 이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본 공모전을 준비하며 스스로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겠습니다.

작품설명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이며 일상으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힐링, 휴식, 관광이 필요하다. 따라서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안(至安) 빌리지'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설계를 했다. 트래킹을 좋아하는 사람,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노인 및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차별 없이, 치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길 바란다.



모든 이들이 편안함에 이르기까지 지안(至安) 빌리지 '강원도 강릉에서의 풀 같은 휴가'

BACKGROUND

COVID-19

2020년 1월 20일 - 2022년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 - 2022년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 - 2022년 1월 20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해요”

TARGET

ALL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LOCATION

강릉시 강릉읍 강릉로 100-1

강릉시 강릉읍 강릉로 100-1

CONCEPT

숲, 바다 + 자연의 바다 + 휴양

“자연 속에서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다”

MASS STUDY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LAYOUT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

PERSPECTIVE & MATERIAL

1. 외시드 및 컨테이너
2. 거실 및 침실
3. 수영장 및 마당
4. 데크 및 정원

UNIVERSAL DESIGN

1. 내시드의 통행로
2. ‘약’을 위한 공간, 모든 존재 ‘연드네임’
3. ‘계’하고 인접한 ‘욕실’
4. 모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수영장’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 대상 회전선 콘센트
- 최우수상 비마이맵(B my map)
- 우수상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 <두리>
- 우수상 BINGGLE(빙글)
- 입선 +ABC 시각장애인 안내 드론
- 입선 Push and Pull Lock(PPL)
- 입선 savior(세이버)
- 입선 Vetter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 대상 회전선 콘센트



출품자

작품명 : 회전선 콘센트
최민지 |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참가소감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 했던 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차별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이라는 의미를 내내 생각해보았다.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니버설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작품설명

이 콘센트는 플러그를 보고 꽂기 힘든 위치에 있거나 가려져있어 볼 수 없을 때 보지 않고 꽂을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단자 구멍으로 가는 사선의 높이로 만든 길을 뚫어 꽂을 때 사선을 따라 내려가면 플러그가 단자 구멍에 꽂히는 형식입니다.



회전 콘센트

보지 않아도 쉽게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돌려 꽂는 부분

Background
기존의 콘센트는 가구에 가려져 있거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콘센트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꽂기 힘들다. 결국 콘센트는 정확한 모양을 확인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Concept
단자 구멍으로 가는 구조를 사선으로 하여 힘을 주기만 하면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단자 구멍에 들어가게 된다.

How to use

step.1 갖다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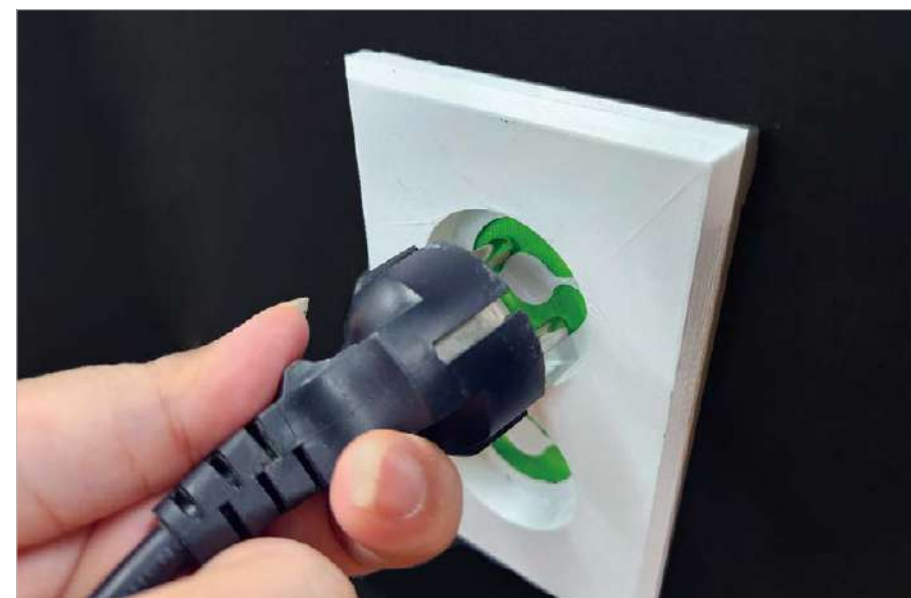
step.2 곡선을 따라 돌려 넣기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 대상

회전선 콘센트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 최우수상 비마이맵(B my map)



출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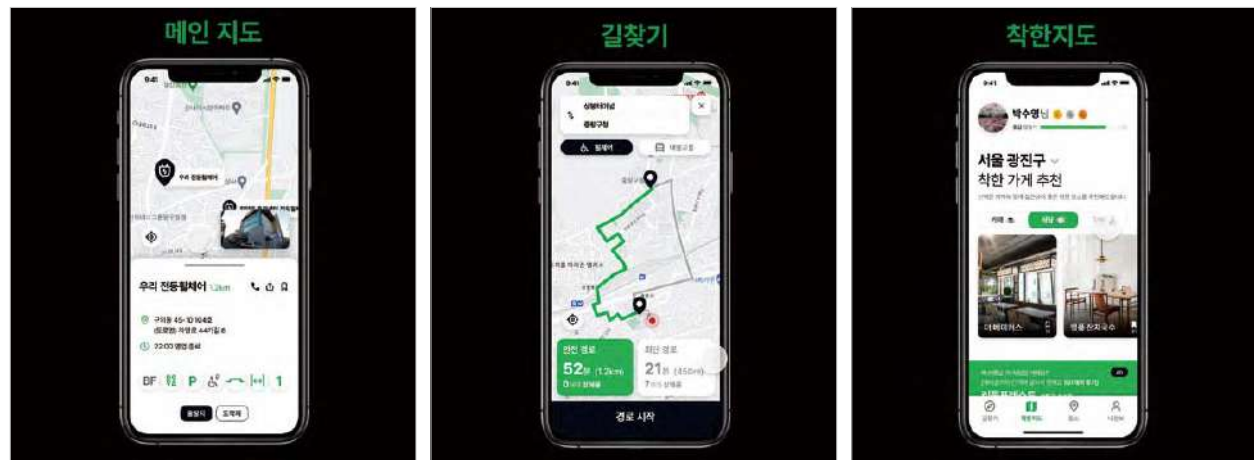
작품명 : 비마이맵(B my map)
팀 원 : 박진영 | 서일대학교, 진미래 | 건국대학교

참가소감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밖으로 꺼내보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해당 공모전 참여를 통해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가 널리 퍼져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굴되고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품설명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 중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보행 시 필요한 공간이 더 요구되기에 대중교통이나 시설 이용 시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마이맵(B my map)은 이동약자들에게 맞춤 우회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정보 교류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지도 앱, B my map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 중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보행 시 필요한 공간이 더 요구되기에 대중교통이나 시설 이용 시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마이맵은 이동약자들에게 맞춤 우회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정보 교류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입니다.

User Research

Interview

- 인터뷰어: 커미 "이동약자, 특히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낮아 불편을 겪고, 장애인들은 보행 시 필요한 공간이 더 요구되기에 대중교통이나 시설 이용 시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인터뷰어: 박지 "이동약자, 특히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낮아 불편을 겪고, 장애인들은 보행 시 필요한 공간이 더 요구되기에 대중교통이나 시설 이용 시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Survey

현재 이 앱이 84%가 지로 사용되어, 그 중 52%가 불만이 없다고 응답함.

- 1. 이동약자들에게 불편을 겪고 있다. (84%)
- 2. 구획적이고 상식만 지니는 것 같다. (84%)
- 3. 경사길, 계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힘들다. (84%)

새로운 공유 길에 대한 요구도 높음 (84%)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지도가 필요하다 (84%)
경사, 계단, 장애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84%)

Solution

- 이동약자 맞춤형 정보
- 이동약자 맞춤형 길 찾기
-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 찾기

Accessibility

- 퀵체어 충전소 18.00 : 1 AAA grade
- 다리가 편한 장소예요 24 8.63 : 1 AAA grade
- 위치가 좋아요 12

지도

- 맞춤 길을 소개해줘요**: 방문 시 길 안내, 도로 상황,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계단이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계단 정보를 알려주어 불편을 줄여줍니다. (예: 계단 정보, 경사도, 계단 정보 등)
- 불편한 길은 제외해요**: 불편한 길(예: 경사길, 계단길)을 제외하고 편안한 길을 제공합니다.
- 검색할 필요 없어요**: 방문 시 길 안내, 도로 상황,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꼭 필요한 것만 보여줘요**: 방문 시 길 안내, 도로 상황,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착한 가게를 찾아보세요**: 지역별 착한 가게(예: 장애인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등)를 찾아줍니다.
- 테마별 정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테마별 정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고용 등).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우수상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 <두리>



출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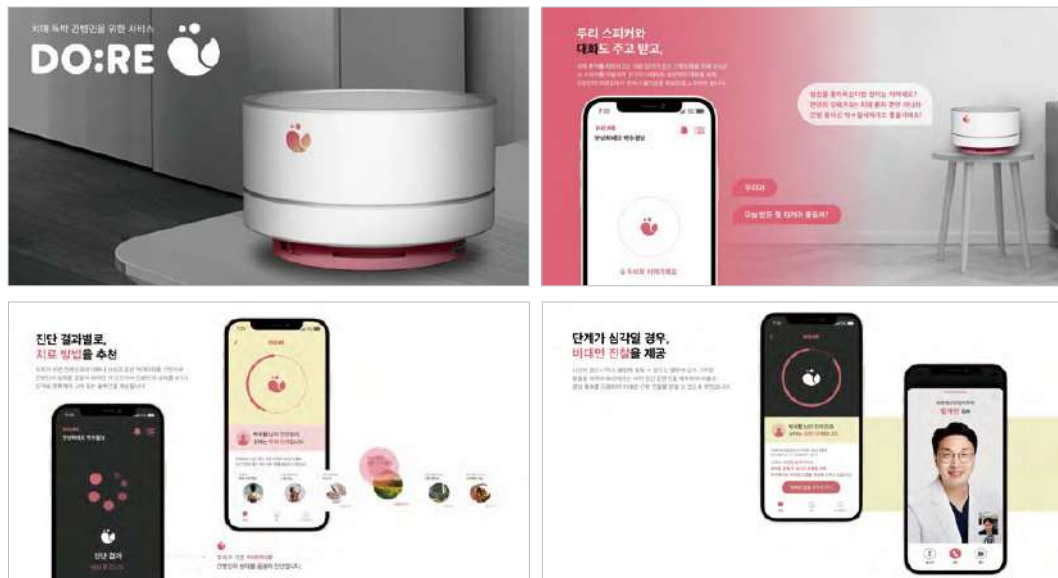
작품명 :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 <두리>
 팀 원 : 곽나영 | 계명대학교, 우예진 | 계명대학교, 강경희 | 계명대학교

참가소감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다시금 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만든 치매 독박 간병인 마음 치유 서비스인 두리가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설명

저희는 치매 어르신을 간병해야 하는 이유로 외출이 어려우신 '독박 간병'중인 분들을 위해 제작된 소통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진단하여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를 권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저 대화와 소통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현실적인 치료가 중점이 되는 비대면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



DO:RE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

OVERVIEW

저희는 치매 어르신을 간병해야 하는 이유로 외출이 어려우신 '독박 간병'중인 분들을 위해 제작된 소통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진단하여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를 권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저 대화와 소통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현실적인 치료가 중점이 되는 비대면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

PROBLEM

- 100만명: 치매 독박 간병인 수
- 88.3%: 독박 간병인 중 우울감 동반률
- 54%: 독박 간병인 중 우울증 치료 비율

독박 간병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가 30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독박 간병인도 증가하고 있다. 독박 간병인 중 88.3%는 우울감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 중 54%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독박 간병인들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치매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박 간병인들은 치매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PLICATION CONCEPT

DO:RE는 비대면 상담, 진단, 처방과 소통을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비대면 상담으로
트리는 40여 대안
목적 가보기

침착한 도움을 주는
신생애가시 플랫폼

비대면 상담으로
이 제공

DESIGN MOTIVE

DO:RE의 목표는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이다.

LOGO & ICON

COLOR PALLETTE

1. 치매 간병인 현황

치매 독박 간병인 현황을 파악하고, 치매 독박 간병인을 위한 마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대면 상담 및 진단

비대면 상담을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3. 맞춤형 상담 및 처방

치매 독박 간병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4.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5.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6.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7.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8.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9.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10. 두리 스피커와 대화도 주고 받기

두리 스피커를 통해 치매 독박 간병인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우수상 BINGGLE(빙글)



출품자

작품명 : BINGGLE(빙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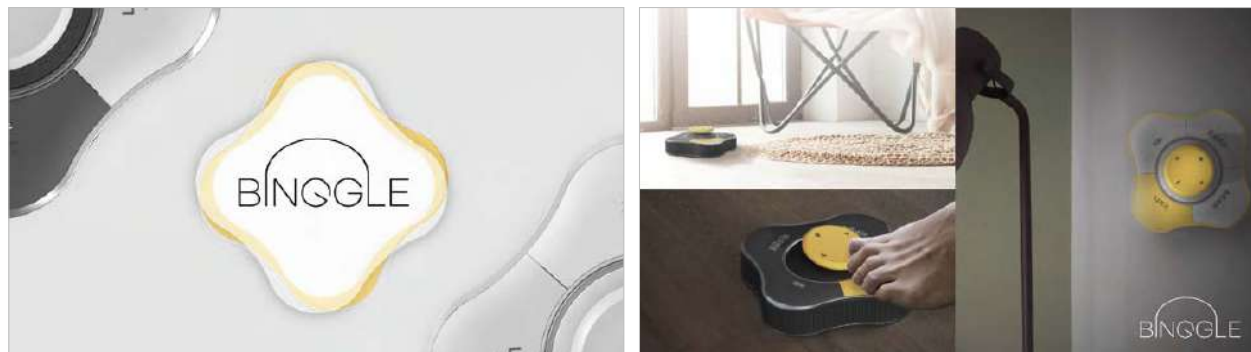
팀 원 : 이유림 | 가천대학교, 유혜정 | 가천대학교

참가소감

이번 제 4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유니버설 제품에 대한 배경조사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자인하는 것에서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상자들의 작업물 발표를 보며 서비스적인 유니버설디자인도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자인사고력에 큰 도움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작품설명

절단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TV 컨트롤러다. 이 두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컨트롤러의 물리적 버튼의 종류와 사용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 디자인 형태를 찾아냈다.



BINGGLE

빈글은 시각장애인과 절단장애인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TV컨트롤러입니다. 각 대상의 평소 리모컨을 사용하는 형태를 조사하고 제품에 적용하여 단순한 물리작용 형태로 TV의 수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컨트롤러는 크기가 작고 많은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은 절단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제 컨트롤러 조작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절단장애인은 신체이 불편할 때에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버튼의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런 불편함에서 장애인과 안전한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TV 컨트롤러를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Design IDEA

작고 많은 것수의 버튼을 부피만 줄이고 단순화하여 필요한 버튼만 물리적 조작성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전안의 기술기 컨트롤러와 4개의 버튼은 손가락을 활용한 상세한 조작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크게 구현했습니다. 또 다른 부가적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작은 버튼이 아닌 컨트롤러의 몸체를 디자인처럼 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Structure

Function Detail

- 기동/정지/소스**: 버튼 부피를 줄이고 4개의 버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버튼의 크기를 줄여 주었습니다.
- 시각장애**: 빈글을 누르고 2초 이상을 누르면 음성제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 절단장애**: 빈글을 누르고 2초 이상을 누르면 음성제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 방향**: 빈글을 누르고 2초 이상을 누르면 방향제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 채널**: 빈글을 누르고 2초 이상을 누르면 채널제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SIZE (단위 mm)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ABC 시각장애인 안내 드론



출품자

작품명 : +ABC 시각장애인 안내 드론

팀 원 : 정주현 | 계명대학교, 권소현 | 계명대학교, 양지혜 | 계명대학교

참가소감

우선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영광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한정적인 타깃을 위한 제품 디자인은 일상에서 미처 생각 못 한 것에 신경 써야 하는 점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뜻깊었습니다. 개선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되려 그들에게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니버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드론 지팡이 '+ABC' 시각장애인은 외출할 때, 지팡이와 안내견과 함께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케어 하긴 쉽지 않다. 돌봄 문제와 동시에 안내견 리트리버 한 마리 육성에는 1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ABC'는 안내견 대신 홀로그램 드론의 철새가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ABC'는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며 언제나 안전성을 보장한다.



+ABC
Plus Alpha Blind Cane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드론

'+ABC'는 '+ Alpha Blind Cane'의 줄임말로 시각장애인 안내 드론 지팡이다. 영도견과 시각장애인의 동반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홀로그램 드론은 안내견 케어 문제와 대형견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여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안내견, 과연 도움이 될까?"

Problem

안내견을 케어하기 힘든 시각장애인

Solution

안내견 대신 "드론"

Keypoint

"길잡이 철새는 당신을 목적지로 안내한다."

- Color**
시각 장애인과 목적을 상징하는 흰색 철새 주둥이 + 안전을 위한 주황색 포인트 컬러
- Hologram**
길을 찾는 시각장애인용 돌봄, 길을 걷는 비장애인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30m 앞 목적지 도착합니다

진동으로 아는 위험감지

장애물이 감지되면 지팡이의 진동으로 시각장애인이 알아차릴 수 있다.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론은 지팡이에 자동으로 인식한다.

휴대성

무선 충전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Push and Pull Lock(PPL)



출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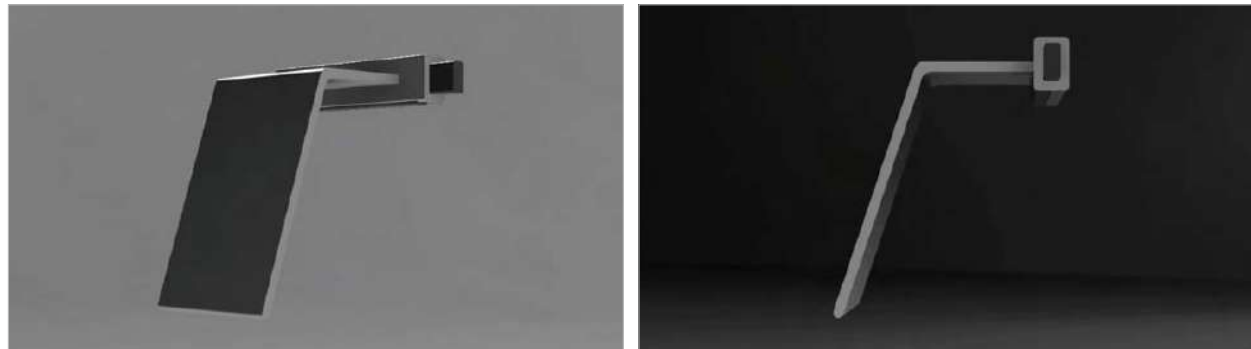
작품명 : Push and Pull Lock(PPL)
 팀 원 : 오하경 | 한동대학교, 박하민 | 한동대학교, 백송이 | 한동대학교

참가소감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관심 있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인식하고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성장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하며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장소인 화장실을,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공용 화장실의 손잡이를 사용하면서 한 번쯤,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제품도 누군가는 사용할 수조차 없는 제품일 것이다. 그러므로 '유니버설', 모두가 거리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PPL push and pull 손잡이를 개발했다.



Push and Pull Lock

〈잠겨있을 때〉

Front

Side

Back

배경

다양한 형태의 공용 화장실의 손잡이를 사용하면서 한 번쯤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밀도 누군가는 사용할 수조차 없는 제품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거리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PPL push and pull 잠금장치 손잡이를 개발하였다.

작품 개요

다양한 잠금장치 손잡이 중 손으로 정교한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는 손잡이가 있다. PPL은 직관적이면서도 밀고 당기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팔목이나 손가락, 심지어는 발 등으로 잠금장치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불편한 사람, 어린이, 노약자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손잡이의 길이, 폭 그리고 너비, 각도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색맹인 사람과 외국인을 고려하여 입체적인 O,X 표시와 직관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잠금장치의 잠금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존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닫을 때 문을 밀고(push), 잠금장치를 거는 2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문을 닫으면(push) '딸깍'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잠금이 되어 번거롭지 않다.

잠금장치를 열고 나갈 때 역시, 손잡이 본체를 잡아당기면(pull) 잠금장치가 풀리는 동시에 문이 열린다.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savior(세이버)



출품자

작품명 : savior(세이버)
 고원준 | 중앙대학교

참가소감

부족한점이 많았지만 수상했다는 사실이 되게 기뻛고, 2차심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해주셨던 날카로운 질문들로 어떤 것들을 더 신경써야했고 보완해야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되어서 제출로 끝나는 보통의 공모전과 비교해 더욱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전으로 배운 점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작품설명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화재 대피 보조기입니다. 시각적으로 제한이 있더라도 촉각으로 옳은 방향을 안내 받아 대피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대피 과정에서 도움 요청이나 대처 방식 선택 등이 있어 자동화를 시켜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대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 savior 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 보조기

Problem

화재상황에서는 최적의 동선을 통해 최단시간 내로 대피하여야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이 차단되어있기 때문에 화재상황에서 이상적으로 경로를 내어주는 것이 힘들고 올바른 동선을 택하기란 사실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Solution

- 동선이 시각적으로 되는 환경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도달할 수 있게 한다.
- 자동 신고기능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촉각]을 통해 비상 대피경로의 경로를 안내받고 진동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한다.

Design Concept



[고대미]

최소불 이상 차별화



[경근성]

단순한 구조 & 사용법



[부드러움]

그립감 & 인형성



[촉각 활용]

촉각 활용 극대화

Mechanism



기기에 저장되어있는 거주지로부터 비상대피로 입구까지의 경로를 기반으로 나침반처럼 원점이 회전하여 방향을 안내한다.



Scenario



간을 채 취해 시, 현관에 위치한 기기가 소리와 빛을 내며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원점으로 유도함.

기기를 붙으면 동선 안내기능이 활성화 되고 동시에 지렛대 기관에 도움요청 메시지를 전달함.

회전하는 동선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대피를 진행함.

무사히 비상 계단에 도착하며 빠르게 탈출한 후 단안을 확보함.

03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입선 Vetter



출품자

작품명 : Vetter

팀 원 : 황현동 | 홍익대학교, 이유림 | 홍익대학교, 김예지 | 홍익대학교

참가소감

디자이너에게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대회가 그런 사고관을 녹여낼 기회였던 것 같아 기쁩니다. 이후로도 관련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설명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담감 때문에 쉽사리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돕던 자원봉사자도 펜데믹 사태로 인해 봉사기관의 활동이 축소되면서 접점이 사라졌습니다. Vetter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장애인과 봉사자의 새로운 접점이 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
04

부록

2022년

GKL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04 부록 | 2022년 GKL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본 공모전은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민간기업 (주)디스에이블드가 3자간 협업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수상작가 전원이 민간기업 (주)디스에이블드에 정규직 및 온라인 플랫폼 등록 작가로 일자리 취업 연계도 추진됩니다.

1. 공모전 개요

- 홍보기간 : 2022. 6. 1.(수) ~ 6. 30.(목) 4주간
- 공모자격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아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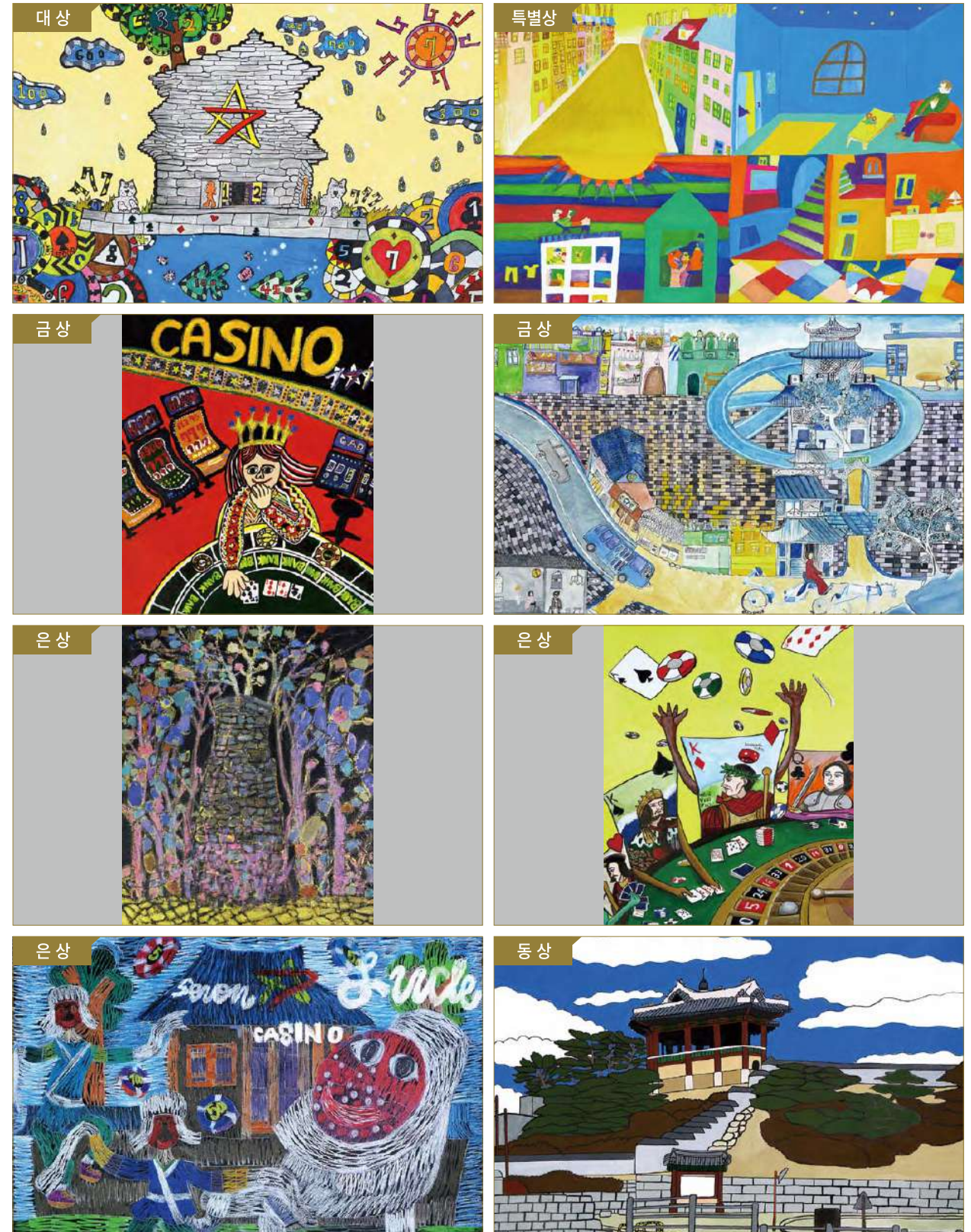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수상자의 경우 (주)디스에이블드를 통한 취업연계 또는 작품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발생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함
- (주)디스에이블드에 채용된 작가(정규직) 공모전 참여 불가(공고일 2022.6.1.(수) 기준)
 - ※ 작가플랫폼에 등록된 프리랜서 작가는 참여 가능

- 공모주제 : 자유주제
 - ※ 카지노 세븐력, 한국의 세계유산 및 대한민국 관광명소 심사 시 우대
- 공모분야 : 그림 (※ 컴퓨터 그래픽, 조소 작품 제외)
- 접수기간 : 2022. 7. 1.(금) ~ 7. 15.(금) 2주간

2. 수상작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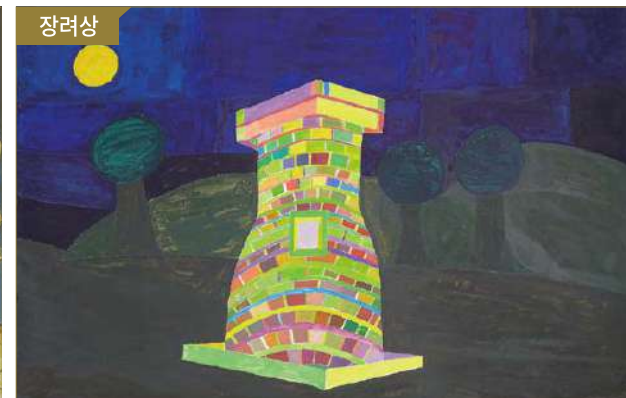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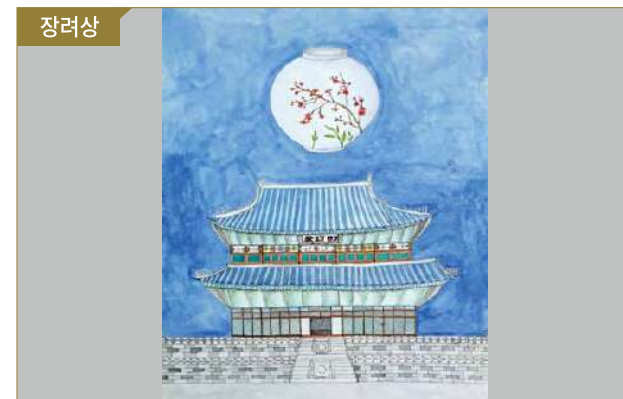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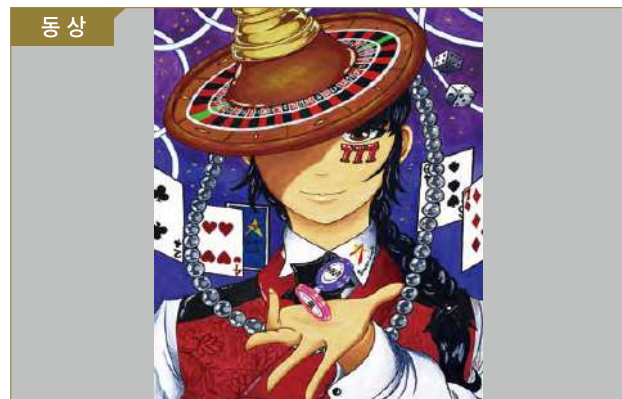
- 대상 1점, 특별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7점, 장려상 14점(총 28점)

시상내용(수)	수상자	작품명	수상자	작품명
대상(1명)	한정훈	분황사 석탑과 세븐력카지노	강동현	카지노에 왕이 되는 날~
특별상(1명)	박지훈	꿈 속의 마을	강예림	창덕궁(인정전)
금상(2명)	김종훈	카지노의 여왕(퀸)	권강희	카지노 카레이싱
	최지애	과거와 미래	김대연	서울과 한양
은상(3명)	권순욱	ORIGIN 1. (달과 별들의 이야기)	김비주	경복궁의 밤
	신의현	역사 속 인물들의 게임	김승모	세종대왕과 킹
	양현집	한국의 전통과 세븐력카지노	김주리	석굴암
동상(7명)	김준엽	수원화성	김현우	달 밝은 밤 첨성대 야경
	신현채	불국사와 왕릉	김호균	카지노로 간 앨리스
	유연지	석양에 물든 고인돌 목장	박현숙	하회마을의 하회별신굿탈놀이
	이다은	소녀와 내기한판	안상준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이승윤	세븐력과 함께하는 관광명소	윤효준	세븐
	이찬희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신명나게 즐기는 외국인들	채현수	제주도
	황인성	한국의 전통 카지노	황태현	완도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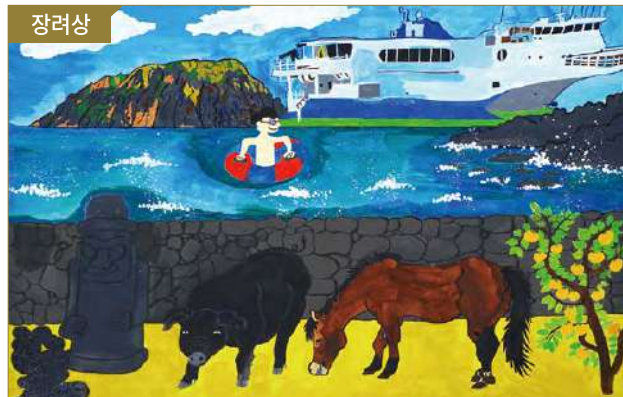
04 부록 | 2022년 GKL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04 부록 | 2022년 GKL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당신의 재능이 일자리가 됩니다]





2022 Universal Design Idea Award

2022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화	02-3433-0600
팩스	02-412-0463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